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13. 경제적인 표현

김완일 목사 / 1994

“효과적인 성경공부를 위해서는 적당한 길이로 문장을 끊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경제의 원리는 문장에도 적용된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의 원리는 문장에도 적용된다.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만큼의 말만 쓰는 것이 문장의 경제성이다. 성경공부현장에서도 필요한 말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석자의 마음과 인격에 확신과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도자의 문장표현은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 써서 필요한 만큼의 길이로 끝나는 것이 필요하다. 말을 길게 할 때는 주어가 불분명해지며, 주어와 술어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아무리 노련하고 감각있는 사람이라도 주어를 놓치고 부적절한 술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잃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되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어와 술어가 간결할수록 그 뜻은 한층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간결한 문장의 사용은 많은 언어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블랙우드(A. W. Blackwood)의 제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 한 문장안에서 우회하는 것을 피하라. 삼입구를 사용하여 듣는 사람을 혼란시키지 말라.

(2) 주어를 술어 가까이 두라. 설명하는 것을 길게 하면 횡설수설하게 되고 어디서 끝나야 할 것인지를 모르게 된다.

(3) 대부분의 문장을 짧게 하라.

(4) 문장 안에서는 사살의 연결성을 지키도록 하라.

예를 들어 성경공부 인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지만 또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 죄인을 그 죄에 따라 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

...

참석자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나머지 말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라고 말해 주고 싶은 것이다. 이런 말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끝까지 듣지 않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적당한 길이로 문장을 끊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분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은 죄인을 죄에 따라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

* 출처 : 온누리신문